

에이즈 퇴치운동에 동참하는 아티스트들

지난 12월 1일은 유엔이 정한 제 20회 '세계 에이즈의 날'이었다.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에이즈 확산을 막기 위한 행사가 세계 곳곳에서 열렸다. 그동안 많은 에이즈 예방 및 퇴치 캠페인들이 각국의 정부 및 민간단체들에 의해 펼쳐져 왔다. 그 중에서 아티스트들이 적극 참여하여 이뤄졌던 캠페인 하나를 소개한다. 그들의 뜨거운 예술혼이 담긴 포스터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캠페인이 한번쯤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기대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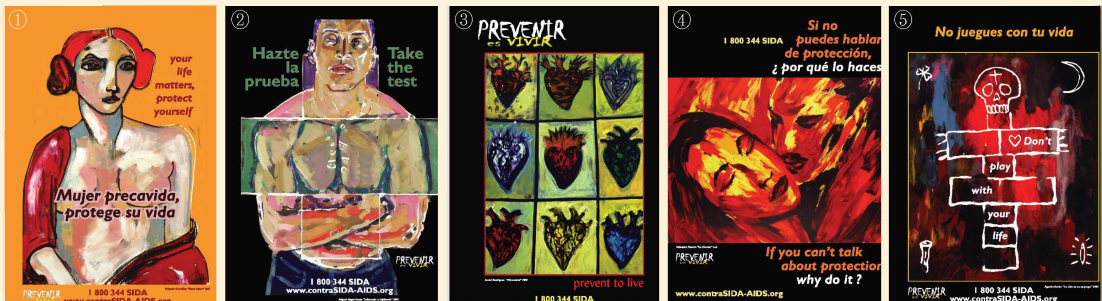
글 최두헌 프리랜서 카피라이터

예술가들이 참여한 Prevenir ES Vivir 포스터 캠페인

Prevenir ES Vivir(Preventing is to live : 예방은 살기 위한 것) 캠페인은 미국 질병관리센터(US Center of Disease Control)가 2001년부터 HIV/AIDS에 대한 라틴 아메리카인들의 건강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다.

포스터, 지역사회 예술, 공영 라디오 및 인터넷의 힘을 통하여, 여성과 젊은이를 포함한 다양한 타겟 오디언스들에게 HIV/AIDS의 현실과 인명구조 정보에 좀 더 많이 접근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그 중에서 여기에 소개하는 포스터는 모두가 일반인이 아닌 아티스트들에 그려졌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하다. 참여한 아티스트들은 예술운동 창시자를 비롯하여 순수미술 작가 등 다양한 경력의 소유자들로서,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특히 라틴 아메리카인들의 지역사회와 그들의 문화적 배경을 잘 알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중심이 되었다. 이 포스터들은 각급 학교나 단체에서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포스터1) 러시아, 일본, 스페인 등에서 객원 아티스트 활동하며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카탈로그와 아트 저널 및 전시회를 가진 바 있는 동부 LA 소재 MA갤러리의 주인인 율란다 곤잘레스의 (Rosie Suico). 당





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 스스로 보호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포스터2) 미구엘 엔젤 레예즈의 〈Information or intlamation〉. 7살에 첫 작품을 그린 미구엘은 그림 공부를 위해 멕시코에서 LA로 이주하였다. 그의 주요 작품은 플라주와 추상화, 파스텔화이다. 사진에도 많은 관심이 있어 프리랜스 사진작가로도 활동하며 최근에는 에이즈에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포스터3) 이 포스터는 이스라엘 로드리게즈의 〈심장〉이라는 작품이다. '예방은 살기 위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로드리게즈는 멕시코 출신이며 산 카를로스 아카데미에서 공부했다. 그의 작품은 멕시코 유명 전시장에 전시되어 있으며, 솔로 혹은 그룹으로 활동하고 있다.

포스터4) 〈La novela〉.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패러디한 듯한 이 포스터는 이탈리아, 독일, 미국, 멕시코 등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살로몬 웨르타의 작품이다.

포스터5) 〈인생은 놀이가 아니다〉는 프리랜스 사진작가인 오거스틴 배런의 작품이다. 떠오르는 아티스트인 그는 사진과 그림의 합성이라는 실험적인 작업을 통하여 사진예술의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포스터6) '에이즈에는 얼굴이 없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무제〉는 LOS FOUR 예술가로 알려져 있는 예술운동의 창시자 프랭크 로메로의 작품이다. 그는 많은 세리그래프(실크스크린 인쇄에 의한 채색화)를 통해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포스터7) 캘리포니아 파사데나 디자인 아트센터 순수예술 석사 출신 마가렛 알라르콘의 〈Lady of Motion〉은 임신한 여성을 통해 '당신의 결정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포스터8) 〈나를 사랑한다면 에이즈 검사 받으세요〉의 작가 세라치데는 뉴욕 파슨스 스쿨 순수예술 석사 출신이다. 카리브, 아바나 비엔날레를 비롯하여 많은 전시회를 가졌으며, 뉴욕 현대예술박물관, 산토 도밍고 및 도미니카 공화국 궁전 등에서 그녀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포스터9) 예일대 출신의 마세오 몬토야가 그린 〈공동체 보호〉라는 포스터. 그는 많은 벽화와 중남미, 멕시코 연구서의 삽화 작업에 참여하였다. 여인의 손끝에 '도움은 가까이 있다'는 카피를 배치함으로써 주목도를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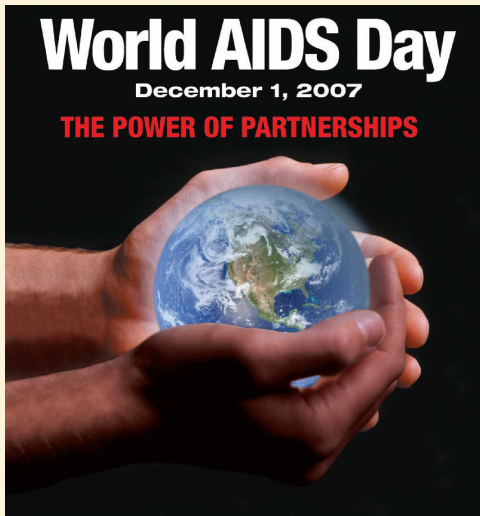
포스터10) 〈외로움〉의 작가 페르난도 살리쿠르프는 뉴욕은 물론 푸에르토리코, 라틴 아메리카, 유럽의 많

은 전시회에 참가했다. 회화는 물론 컴퓨터를 활용하는 다양한 실험적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 포스터에서는 '절망하지 마라, 여기 희망이 있다'라며 자연스럽게 핫라인 전화번호로 유도하고 있다.

2007년 제 20회 세계 에이즈의 날

지난 12월 1일은 유엔이 정한 제 20회 '세계 에이즈의 날'이었다.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에이즈 확산을 막기 위한 행사가 세계 곳곳에서 열렸다.

2007년 세계 에이즈의 날 포스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메시지를 통해 에이즈 퇴치를 위한 가치적이고 현저한 성과를 일궈냈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화국 대통령은 요하네스버그에서 과거 수감 당시 자신의 죄수 번호인 46664를 따서 열린 46664 에이즈 기금 마련 자선공연에서, 에이즈 환자 발생건수는 지난해 4,000만 명에서 올해 3,300여만 명으로 줄었지만, 한 명이 치료받을 때마다 4명이 감염되는 꼴이라며, "각국 정부와 민간 모두가 힘을 합쳐야만 새로운 HIV바이러스 감염 순환의 고리를 끊고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총리도 부모가 에이즈로 사망한 고아들과 병원에 입원한 HIV 양성인자들을 방문했다. 이곳은 1990년대 초 헌혈 과정에서 농부 수십만 명이 에이즈에 감염되면서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던 마을인데, 그동안 중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한 비난과 외국 투자에 영향이 미칠 것을 두려워하여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던 곳이다. 또한 '세계 에이즈의 날'에 중국에서 열린 미스월드대회에서는 에이즈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의 메시지가 소개되기도 했다. 만델라 전 대통령의 아들 막가토는 2005년 에이즈로 숨졌으며 장녀 마키는 이번 대회 9명의 심사위원 중 한 명으로 참석했다. 중국 정부는 HIV에 감염된 사람들이 거의 70여 만 명이라고 말했다.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는 빨간 리본으로 장식된 특별한 열차가 등장했다. 에이즈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하기 위한 각종 장비를 싣고

있는 이 열차는 200여 개의 역을 돌며 주민들에게 직접 에이즈에 대해 설명하게 된다고 한다.

태국에서는 청지갑을 가진 사람들이 젊은이들에게 콘돔을 나누어 주는 운동을 벌였다. 태국 에이즈 사무국장은 콘돔을 주머니에 넣어서 준다는 것은 늘 이것을 소지하라는 것을 의미하며, 10대들이 콘돔을 갖고 다니는 일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역설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도 이날 미 의회를 상대로 향후 5년간 에이즈 퇴치를 위한 지원액을 300억 달러로 증액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처럼 세기의 재앙, 에이즈 퇴치를 위한 노력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